

# 의복과 그 직물에 대한 평가의 재현성 차이에 관한 연구

유 경 속

군산대학교 의류학과

## A Study of stability in ratings for clothing and their woven fabrics

Kyung-Sook You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00. 10. 12 접수)

### 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measure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and fabric evaluation and to examine its relation to the ratings. A sample of 93 female and 97 male university students rated clothing of 4 styles of daytime wear and 2 fabrics on 15 pairs of polar adjectives twice in 7-days interval.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two ratings for each subject,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the evaluation, ranged from -0.12 to 0.89 and mean coefficient was 0.63 of female and -0.01 to 0.78 and mean coefficient was 0.54 of male.

Based on the coefficients, the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Analysis of variance of mean ratings by the three groups revealed that significant difference existed in 24% of female and 23% of male in 90 combinations of 6 clothing and 15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Female of subjects with high intra-individual consistency were most likely definite to evaluate clothing, whereas the ones with low were least. But male subjects were not definite.

Mea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style evaluation subscales of female was 0.39, but male was 0.44. Among the semantic differential scales, high stability in the two ratings was observed for the synthetic clothing evaluation.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clothing obtained from the mean score of the subjects in each semantics differential scale were around 0.98, including that the mean scores of the subjects in each scale could yield excellent stability in clothing evaluation.

**Key words:** clothing evaluation, semantic differential scale, correlation consistency, test-retest stability; 의복평가, SD척도, 상관관계, 재검사안정성

## I. 서론

의복에 대한 개개인이 갖는 심리적 의미는 평가

자에 따라 다르지만 복장의 이미지나 기호 등에 관한 연구에는 평가자의 평균치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개인차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적다.<sup>2)</sup> 평가의 개인차에는 평가자간 및 평가내의 차이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평가자의 가치관, 기호의 차이에 기초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주로 평가자의 복장에 대한 평가기준의 애매함이나 평가시의 모든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보통 측정에는 평가치 안에 두 가지의 차이가 혼합되어 있어 그것들의 영향을 분리시켜서 분석하는 것은 어렵다.

개성 등을 측정하는 심리척도에는 그 척도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같은 척도를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동일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2회 평가를 실시하여 그것들의 평가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신뢰성의 지표로 삼고 있다. 이것은 재 검사법으로 불리어져, 작성된 심리척도의 안정성 평가로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다<sup>3,4)</sup>. 본 연구에는 의복 및 직물이미지 평가에 대하여 재검사법을 적용하여 SD척도의 안정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평가내의 차이를 산출하여 평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더불어서 동일한 피검자 그룹에 대하여 같은 복장을 같은 SD척도를 사용하여 2회 측정하여 그것들의 평가치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각 SD척도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이 상관계수는 평가기준의 애매성이 반영된 평가자간의 차이, 즉 평가의 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평가자간의 차이의 크기에 따라 피검자를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그 그룹간의 평가치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동일한 피검자를 대상으로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재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복장을 자극으로서 평가에 적용하여 전 평가자의 평균적인 평가치를 사용하여 각 평가자의 평가에 재현성을 검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것은 보강사진, 색종이를 자극으로 사용하여 평가에 재현성을 측정하여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는 실재의복과 그 의복의 직물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재현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1998년 12월 군산대학교 2~3학년 여자 대학생 93명과 남자대학생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사용하였다.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은 의복 및 직물에 대한 평가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서 실시하

였기 때문에 사용된 복장의 선정에는 특별히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원피스 2종류, 스웨터, 정장 투피스, 원피스에 사용된 것과 같은 직물 2종류(18.5×17.5cm<sup>2</sup>)를 자극물로 각 개인에게 제시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의복은 얼굴이 없는 body에 입힌 상태로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친구의 생일파티에 같은 연령의 여자대학생이 입고 있는 것을 상상하여 평가하도록 상황을 설정하였다. 또한 직물은 손으로 만지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측정은 같은 방법으로 1주일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 2회 때에는 자극물의 제시 순서를 바꾸어서 실시하였다.

자극물의 평가에는 의복의 형태를 평가하는 척도 「섬세한-거친」 「시원스러운-더지덕지한」,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 「활동적인-차분한」 「세련된-촌스러운」 「개성적인-평범한」 「고상한-천박한」 「캐주얼한-드레시한」 「따뜻한-차가운」 「딱딱한-부드러운」 「현실적인-낭만적인」 「밝은-어두운」 「화려한-수수한」 「도시적인-시골스러운」 「경쾌한-무거운」, 의복의 종합평가척도 「좋아하는-싫어하는」 15개의 척도를 본 연구를 위하여 임의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SD척도는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를 중심으로 그 양쪽에 「약간」 「꽤」 「매우」의 7단계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평가자별 상관계수

자극으로 사용된 6개의 자극을 15개의 SD척도를 사용하여 1주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한 후 그 6×15를 관측회수로서 평가자별로 1회와 2회 때의 평가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회와 2회 평가의 상관계수는 여자대학생이 -.012에서 0.89의 범위이며 이때 평균치는 0.63이었다. 한편,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01에서 0.78로서 평균치는 0.54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자대학생 보다 여자대학생의 상관계수가 높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극에 대한 재현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개인내의 평가의 일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성격에 관련된 자기평가에 관한 재검사에서는 1회 때의 응답과 2회 때의 응답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

하여 검토된 바에 의하면 영향을 받는 경우<sup>5~9)</sup>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sup>10)</sup>의 연구사례가 보고되어 있다.

그 영향의 유무는 측정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어, 특히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등 부정적인 자기평가 항목에는 재검사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9)</sup>.

재검사 효과가 있다고 지적된 자기평가 항목은 자기의 성격이나 능력에 관한 내용이다. 1회 때의 평가결과를 기억하기 쉬운 것 또는 그러한 검사에는 현재의 자기평가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sup>6)</sup>. 이러한 자기평가에 비교하여 본 연구의 복장이미지 평가에는 평가항목이 90개가 있어서 1회 때의 평가결과를 기억하기 어렵고 또한 자기의 평가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재검사 효과를 별로 고려할 것 없이 측정 결과를 고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6개의 자극물을 15개의 SD척도로 2회 평가를 하였을 때 1회 때와 2회 때가 비슷한 평가를 한 사람(상관계수가 큰 평가자)은 자극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반복평가를 할 경우 같은 평가를 하는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평가척도별의 상관계수

앞에서는 6가지의 자극물×15 SD척도를 관측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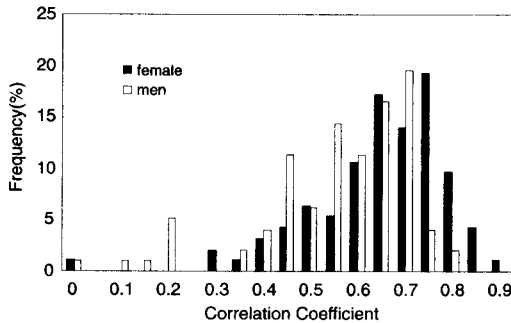


Fig. 1. Frequency distribution of correlation coefficient,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between the two ratings for each subject.

의 상관계수로 분석하였지만 여기에서는 평가자를 관측회수로서 각 복장의 대한 각 평가척도별로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자의 경우는 푸른색 원피스에「시원스러운-덥지덕지한」-0.01, 크림색 직물의「섬세한-조잡한」0.05, 남자의 경우에는 크림색 직물의「활동적인-차분한」0.04로서 거의 상관이 없는 정도이다.

가장 상관이 높게 나타난 것은 검은색 정장의「좋아하는-싫어하는」으로서 여자의 경우는 0.77, 남자는 0.72로써, 이 경우는 높은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각 자극에 대한 각 평가척도별로 산출된 상관계수는 작은 것로부터 큰 것까지 상당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상관계수를 평가척도별로 평균값을 보면, 그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여자의 경우「시원스러운-덥지덕지한」0.30, 남자의 경우「활동적인-차분한」0.31, 가장 높은 것은 남녀 모두「좋아하는-싫어하는」0.56으로서, 그밖에 이미지 평가척도의 수치보다 큰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척도는 자극의 종합평가 내용을 가진 척도이며 이와 같은 것이 비교적 큰 상관계수를 준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직물의 촉감, 시각적 질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느낌을 본 연구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2회 측정된 선행연구<sup>11)</sup>에 있어서도 평가의 기준이 비교적 설정하기 쉬운 직물의 촉감을 나타내는 척도「뽀뽀한」,「젓은 느낌」등의 상관계수와 이미지를 나타내는 척도의「밝은」,「화려한」,「젊은 느낌」등의 상관계수와 거의 유사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와 같은 종합평가 척도에는 왜 상관계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인가 그 이유로서 종합적인 평가척도의 경우 자극을 전반적인 시점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이 되므로 1회와 2회의 평가기준이 크게 다른 것이 되기 어려운 것, 즉 종합적인 평가척도 특히「좋아하는-싫어하는」척도의 응답은 다른 척도의 응답보다 기억하기 쉽고 1회때의 평가와 비슷한 평가를 2회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의복의 형태, 이미지 및 종합 평가의 척도별 평가의 재현성을 비교하여 보면, 남녀 모두 상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clothing obtained from mean score of subjects in each differential scale of femal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RO	GS	CF	BO	RF	BT	Mean
SD1	활동적인 — 차분한	0.22	0.56	0.35	0.30	0.45	0.47	0.39
SD2	세련된 — 촌스러운	0.32	0.56	0.41	0.57	0.31	0.57	0.56
SD3	개성적인 — 평범한	0.07	0.63	0.32	0.37	0.13	0.54	0.34
SD4	섬세한 — 거친	0.23	0.43	0.05	0.38	0.28	0.48	0.31
SD5	고상한 — 천박한	0.43	0.49	0.10	0.43	0.25	0.47	0.36
SD6	캐주얼한 — 드레시한	0.20	0.33	0.45	0.36	0.48	0.54	0.39
SD7	따뜻한 — 차가운	0.19	0.28	0.32	0.40	0.46	0.42	0.35
SD8	딱딱한 — 부드러운	0.39	0.42	0.57	0.29	0.33	0.29	0.38
SD9	현실적인 — 낭만적인	0.35	0.42	0.29	0.27	0.32	0.48	0.36
SD10	시원스러운 — 덥지덥지한	0.13	0.43	0.31	-0.01	0.45	0.46	0.30
SD11	밝은 — 어두운	0.37	0.56	0.20	0.27	0.25	0.54	0.37
SD12	화려한 — 수수한	0.34	0.45	0.43	0.16	0.47	0.21	0.34
SD13	도시적인 — 시골스러운	0.45	0.41	0.35	0.54	0.51	0.39	0.44
SD14	경쾌한 — 무거운	0.19	0.48	0.41	0.37	0.36	0.40	0.37
SD15	좋아하는 — 싫어하는	0.44	0.74	0.32	0.47	0.60	0.77	0.56
	Mean	0.29	0.48	0.33	0.34	0.37	0.47	0.39

Abbreviation: RO; Red one-piece, GS; Green sweater, CF; Cream colour fabric, BO; Blue one-piece, RF: Red colour fabric, BT: Black velvet two-piece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clothing obtained from mean score of subjects in each differential scale of male.**

	Semantic differential scale	RO	GS	CF	BO	RF	BT	Mean
SD1	활동적인 — 차분한	0.15	0.52	0.04	0.31	0.32	0.54	0.31
SD2	세련된 — 촌스러운	0.45	0.51	0.39	0.40	0.50	0.53	0.46
SD3	개성적인 — 평범한	0.27	0.54	0.44	0.40	0.40	0.59	0.44
SD4	섬세한 — 거친	0.29	0.27	0.32	0.29	0.59	0.38	0.36
SD5	고상한 — 천박한	0.39	0.42	0.55	0.46	0.49	0.56	0.48
SD6	캐주얼한 — 드레시한	0.22	0.54	0.45	0.50	0.38	0.55	0.44
SD7	따뜻한 — 차가운	0.26	0.54	0.52	0.34	0.36	0.55	0.43
SD8	딱딱한 — 부드러운	0.40	0.41	0.25	0.31	0.52	0.45	0.39
SD9	현실적인 — 낭만적인	0.27	0.54	0.44	0.35	0.45	0.27	0.39
SD10	시원스러운 — 덥지덥지한	0.29	0.36	0.50	0.40	0.43	0.51	0.42
SD11	밝은 — 어두운	0.32	0.55	0.57	0.52	0.61	0.41	0.50
SD12	화려한 — 수수한	0.34	0.49	0.44	0.45	0.45	0.50	0.45
SD13	도시적인 — 시골스러운	0.39	0.52	0.57	0.58	0.51	0.55	0.52
SD14	경쾌한 — 무거운	0.48	0.39	0.37	0.46	0.66	0.50	0.48
SD15	좋아하는 — 싫어하는	0.34	0.59	0.48	0.60	0.64	0.72	0.56
	Mean	0.32	0.48	0.44	0.42	0.49	0.51	0.44

Abbreviation: RO; Red one-piece, GS; Green sweater, CF; Cream colour fabric, BO; Blue one-piece, RF: Red colour fabric, BT: Black velvet two-piece

관계수가 높고, 재현성이 좋은 척도는 종합평가척도였다. 그것은 자극을 평가할 때, 종합적인 시점으로부터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밖에 의복의 형태나, 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의 상관계수는 0.5 이하의 경우가 많아 비교적 상관성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평균치가 여자대학생은 0.39, 남자대학생은 0.44를 나타냈다. 이것은 평가자별 상관계수에서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는 높게 나타난 것은 익숙하지 않은 자극을 평가할 때, 평가에 자신이 없을 때는 평가가 척도의 중앙에 집중하는 중심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each clothing obtained from mean score of the subjects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Stimuli	Correlation coefficient	
	Male	Female
Red one-piece	0.55	0.98
Green sweater	0.98	0.97
Cream colour fabric	0.98	0.94
Blue one-piece	0.91	0.98
Red colour fabric	0.94	0.98
Black velvet two-piece	0.98	0.99

로 본다.

**Table 4. Mean ratings of each clothing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of female.**

Clothing Consistency	SD1	SD2	SD3	SD4	SD5	SD6	SD7	SD8	SD9	SD10	SD11	SD12	SD13	SD14	SD15	
RO	low	3.54	4.91	4.91	3.50	3.91	4.76	3.22	5.28	4.61	4.33	4.04	3.85	4.24	3.59	5.50
	medium	4.14	4.64	4.64	3.22	3.57	5.25	2.96	5.53	5.03	4.02	3.77	3.95	4.52	3.76	5.03
	high	3.96	4.81	4.81	2.89	3.53	5.31	3.02	5.87	5.49	4.04	3.79	3.60	4.11	3.62	4.85
	F value	3.24*	0.75	0.75	5.63**	1.78	4.61*	0.83	5.89**	7.63***	2.41	0.91	1.16	1.49	0.50	2.52
GS	low	3.85	4.61	5.04	3.54	3.70	3.33	2.80	5.30	3.95	3.98	2.23	2.24	4.84	3.03	4.46
	medium	3.69	4.16	4.86	3.89	3.47	3.15	2.44	5.55	3.28	3.75	2.16	2.16	4.04	2.97	3.75
	high	3.60	4.34	5.28	3.17	3.43	3.00	2.11	5.85	2.65	3.54	2.04	2.04	3.37	2.48	3.89
	F value	0.23	2.00	1.46	2.50	1.09	0.92	4.56*	5.82**	10.33***	5.75**	0.55	0.81	5.57**	5.93**	3.17*
CF	low	4.86	3.30	4.07	2.85	2.87	4.80	3.67	4.98	4.04	3.72	3.07	4.35	3.02	3.72	3.61
	medium	5.29	3.13	4.35	2.74	2.67	5.26	3.53	5.50	4.61	3.68	3.24	4.64	3.26	4.13	3.49
	high	5.11	2.84	4.32	2.57	2.33	5.21	3.30	5.72	4.54	3.37	2.76	4.43	2.80	3.50	3.54
	F value	1.31	1.47	0.82	0.90	3.11*	5.07**	1.18	5.77**	2.51	2.28	2.69	0.75	1.64	4.60	0.21
BO	low	4.02	4.96	4.72	3.82	3.65	4.07	4.96	3.83	3.41	3.21	4.80	5.04	4.72	4.28	5.02
	medium	4.03	4.89	5.05	3.84	3.86	4.05	4.84	4.37	3.38	3.34	4.83	5.01	4.57	4.55	5.52
	high	4.50	5.02	5.22	3.65	3.54	4.37	5.04	4.02	3.54	3.32	5.02	5.30	4.59	4.63	5.39
	F value	2.47	0.14	1.93	0.70	1.51	1.38	0.60	2.83	0.31	0.24	0.65	1.45	1.15	1.13	1.92
RF	low	3.55	3.15	3.45	3.19	3.41	4.67	3.11	4.96	4.46	4.15	3.72	3.00	3.46	3.59	4.09
	medium	4.17	2.89	3.39	2.75	2.97	5.16	2.86	5.46	4.95	3.95	3.84	3.13	3.30	4.01	3.50
	high	4.37	2.95	3.24	2.61	3.00	5.59	3.09	5.83	5.22	3.78	4.17	3.00	2.98	3.89	3.48
	F value	3.87*	3.89*	0.46	4.13*	2.35	7.50***	0.91	8.27	5.62**	2.91	2.02	2.09	2.54	2.00	3.15*
BT	low	4.74	2.41	2.96	2.30	2.70	5.33	3.76	4.67	5.04	4.43	4.35	2.65	2.46	3.93	3.11
	medium	4.72	2.43	3.07	2.33	2.34	5.69	3.39	5.06	5.28	4.20	4.48	2.53	2.36	3.74	3.06
	high	4.78	2.41	3.22	2.21	2.30	5.81	3.06	5.15	5.32	4.26	4.64	2.19	2.34	3.53	3.17
	F value	0.02	0.01	0.65	0.45	2.89	2.33	3.54*	1.83	0.61	1.11	0.62	2.79	0.26	1.07	0.08

\*p<0.05, \*\*p<0.01, \*\*\*p<0.001

3. 복장별 상관계수

각 자극물에 대한 평가척도를 관측회수로서 평가 평균치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각 자극에 1회와 2회의 평가치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어떤 자극물에 대해서도 여자대학생은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강한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자대학생의 경우 붉은 원피스에 0.55의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대학생의 있어서는 붉은 색 원피스가 익숙하지 않는 색상의 의복이기 때문에 1회와 2회의 평가기준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1에 나타난 평가자별 상관계수 및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난 평가척도별 상관계수에는 수치가 작은 경우부터 상당히 큰 경우까지 다양하지만, 모든 평가자의 평가 평균치를 자료로 사용하면 큰 상관계수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4. 재평가 일관성의 차에 따른 평가평균치의 차이

평가자별로 평가의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관계수가 낮은 응답자부터 높은 응답자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그 상관계수의 대소에 따라 평가자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남자의 경우 상관계수가 -0.01 ~ 0.45는 평가의 일관성이 낮은 그룹(25%), 상관계수가 0.46 ~ 0.65

Table 5. Mean ratings each clothing in each semantic differential scale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of male.

Clothing Consistency	SD1	SD2	SD3	SD4	SD5	SD6	SD7	SD8	SD9	SD10	SD11	SD12	SD13	SD14	SD15	
RO	low	4.17	4.43	4.26	3.67	3.66	4.55	3.52	4.55	4.44	3.83	4.05	4.24	4.38	4.31	4.74
	medium	3.94	4.77	4.15	3.78	3.85	4.76	3.22	4.86	4.23	3.85	4.00	4.33	4.46	4.38	4.71
	high	4.03	4.83	4.28	3.84	4.01	4.76	3.36	4.64	4.34	3.93	4.03	4.45	4.48	4.41	4.93
	F value	0.51	1.37	1.04	0.37	1.44	0.70	0.91	1.16	0.26	0.13	0.02	0.32	0.07	0.08	0.42
GS	low	4.05	3.52	3.88	3.17	3.22	3.43	2.71	5.43	4.00	2.84	2.16	4.10	3.40	2.81	2.83
	medium	3.71	3.32	4.05	3.05	3.27	3.17	2.03	5.81	4.18	3.14	1.97	4.22	3.56	2.58	2.44
	high	3.72	3.40	3.88	3.18	3.21	3.21	2.41	5.64	3.38	3.16	1.95	4.53	3.41	2.53	2.62
	F value	0.66	0.33	0.31	0.40	0.07	0.56	6.14**	2.72	4.55*	1.53	0.81	1.21	0.32	1.61	1.49
CF	low	3.86	3.52	4.16	3.31	3.09	4.22	3.40	4.98	3.90	3.12	2.80	4.29	3.08	3.43	3.31
	medium	4.64	3.64	4.36	3.53	2.92	4.71	3.44	4.99	4.01	3.62	3.41	4.46	3.72	4.05	3.94
	high	4.83	3.90	4.50	3.19	3.14	4.90	3.69	4.91	4.02	3.47	3.36	4.49	3.93	4.03	4.07
	F value	6.23**	1.16	10.2	0.37	0.74	3.40*	0.90	0.06	0.14	6.07**	4.42*	3.88*	5.51**	4.59*	4.60*
BO	low	3.69	3.90	3.69	3.91	3.69	3.84	4.69	3.83	3.41	3.17	4.28	4.41	3.67	3.97	4.08
	medium	3.71	4.18	4.32	3.70	3.73	3.96	5.03	3.81	3.54	3.18	4.88	4.81	4.13	4.38	4.24
	high	4.10	4.34	4.52	3.86	3.86	4.05	4.72	4.12	3.34	3.28	4.64	4.69	4.05	4.43	4.50
	F value	1.54	1.45	5.46**	0.51	0.37	0.37	1.63	1.09	0.52	0.12	3.11*	1.77	1.58	1.78	0.94
RF	low	3.10	3.40	3.38	3.26	3.16	4.36	2.97	4.31	4.33	3.81	3.76	3.60	3.45	4.17	4.12
	medium	3.75	3.65	3.22	3.28	3.67	4.62	3.09	4.58	4.50	4.17	4.06	3.22	3.59	4.15	4.31
	high	3.86	3.72	3.60	3.48	3.48	5.02	3.17	4.55	4.17	3.86	4.12	3.34	3.47	4.41	4.09
	F value	5.08**	0.71	1.44	0.58	2.75	3.34*	0.35	0.64	0.91	2.18	1.02	1.18	0.16	0.61	0.38
BT	low	3.97	2.83	3.09	3.07	3	4.71	4.57	3.67	4.05	4.10	4.88	3.03	2.88	4.14	3.47
	medium	4.85	2.68	3.21	2.64	2.53	5.41	4.24	3.84	4.17	3.99	4.72	3.19	2.51	4.36	3.19
	high	4.48	2.40	2.90	2.52	2.5	5.38	3.90	4.59	4.02	3.93	4.57	2.53	2.31	3.91	2.78
	F value	4.09*	1.52	0.93	4.18*	3.4*	4.09*	2.98	6.69**	0.17	0.32	0.64	4.34*	3.09*	1.51	2.61

\*p<0.05, \*\*p<0.01, \*\*\*p<0.001

를 중간 그룹(50%), 0.66~0.75는 일관성이 높은 그룹(25%)으로 분류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0.12 \sim 0.56$ 이 평가의 일관성이 낮은 그룹(25%), 상관계수가  $0.57 \sim 0.73$ 까지는 중간그룹(50%),  $0.74 \sim 0.89$ 는 일관성이 높은 그룹(25%)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분류한 평가의 일관성이 다른 3개의 그룹별로 각 자극에 대한 SD척도의 평가평균치를 산출하여 각 그룹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를 분산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와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0개의 cell중에서 각 그룹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5%수준)가 나는 cell이 여자는 22개(24%), 남자는 21개(23%)이었다.

평가의 일관성이 차이를 보이는 3개 그룹에 따른 평가 평균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cell이 가장 많은 자극 즉 여자는 녹색 스웨터, 남자는 크림색(베이지)의 직물을 선택하여 그래프로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여자의 경우 일관성의 높은 그룹, 중정도의 그룹, 일관성이 낮은 그룹순, 또는 그 역순의 평가 평균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평가의 일관성이 높은 그룹의 평가치는 각 평가의 7점 척도범위의 양쪽 끝의 [매우]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그 범위의 중간인 4점의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익숙하지 않는 자극을 평가 할 경우나 혹은 평가에 자신이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가 척도의 중앙에 집중하는 경향(중심화 경향)이 있다는 増山英太郎, 小林茂雄<sup>12)</sup>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일관성이 높은 그룹은 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이 낮은 그룹보다 명확하게 판정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자극물에 대한 평가에서 일관성이 낮은 그룹이 평가기준의 애매함 정도가 크고 범위의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 쪽에 평가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일관성이 높은 그룹은 평가 기준의 애매함의 정도가 작아 제시된 자극물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한 평가를 했다고 생각되어진다. 자극물에 대한 평가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면 재현성이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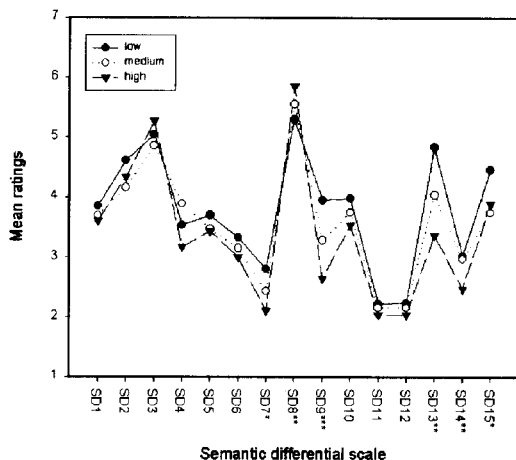


Fig. 2. Profiles of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s to stimuli B(Green sweater)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of fem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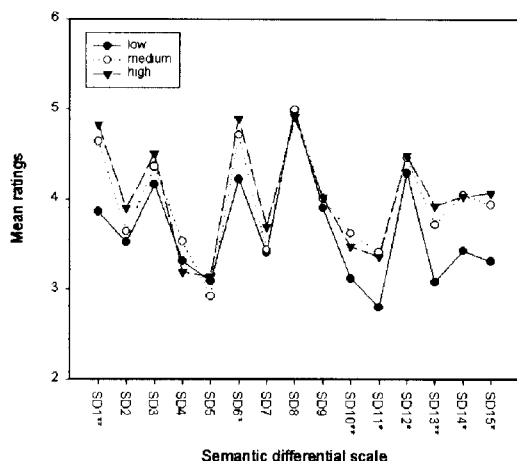


Fig. 3. Profiles of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s to stimuli C(Cream colour fabric) by three subject groups with high, medium, and low intra-individual consistency in clothing evaluation of male.

#### IV.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평가에 있어서 개인 상호

간의 의복에 대한 평가의 일관성 및 평가에 대한 상호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의복에 대한 평가의 재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일 평가자에게 같은 자극물, 같은 SD척도를 사용하여 7일의 간격을 두고 2회 측정하였다.

자극물로 사용된 4개의 의복과 2개의 직물을 평가자 별로 1회와 2회 때, 평가의 상관계수는 여자대학생이  $-0.12$ 에서  $0.89$ 의 범위이며 이때 평균치는  $0.63$ 이었다. 한편, 남자대학생의 경우에는  $-0.01$ 에서  $0.78$ 로서 평균치는  $0.54$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의 상관계수가 높아 남자보다는 여자가 자극물에 대한 재현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개인내의 평가의 일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각 복장의 대한 각 평가척도별로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남녀 모두 상관계수가 높고, 재현성이 좋은 척도는 종합평가척도였다. 그밖에 의복의 형태나, 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의 상관계수는  $0.5$  이하의 경우가 많아 중정도의 상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는 여자대학생은  $0.39$ , 남자대학생은  $0.44$ 를 나타냈다. 이것은 평가자별 상관계수에서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척도별 상관계수의 평균치는 높게 나타난 것은 익숙하지 않은 자극물을 평가할 때, 평가에 자신이 없을 때는 평가가 척도의 중앙에 집중하는 중심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본다.

각 자극물에 대한 모든 평가자의 평가 평균치를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평가척도를 관측회수로써 각 자극물에 1회와 2회의 평가치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어떤 자극물에 대해서도 여자대학생은 어떤 자극물에 대해서도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운 강한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남자대학생의 경우 붉은 원피스에  $0.55$ 의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었다.

평가자별로 평가의 일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산출한 상관계수에 따라 평가자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여자의 경우 일관성의 높은 그룹, 중정도의 그룹, 일관성이 낮은 그룹순, 또는 그 역순의 평가 평균치가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 즉 평가의 일관

성의 높은 그룹의 평가치는 각 평가 척도범위의 [매우] 쪽에 있고, 일관성이 낮은 그룹의 평가치는 그 범위의 [어느 쪽도 말할 수 없다]쪽에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명백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의복과 그 직물을 자극물로 사용하여 평가의 안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로서 평가에 사용된 자극물의 선정에는 특별히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실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즉 표본의 크기가 작고 편의 표집으로 인한 편차 및 복장에 따른 영향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복장의 선정에 엄밀한 기준을 설정하여 복장의 종류, 연령 및 계층에 따른 차이와 다른 의복 행동과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와 일본 가정학회 제51회 대회(1999년)의 발표에 많은 조언과 배려를 주신 日本鳴門教育大學의 藤原康晴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참고 문헌

1. Miller, G. F., Freinberg, A. R., Davis, L. L., & Rowold, L. K., Measuremen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sensitivity to appearance,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0**, 381-390, 1982.
2. Lennon, J. S., & Davis, L. L., Individual differences in fashion Orientation and Cognitive Complexity, *Perception and Motor Skills*, **64**, 327-330, 1984.
3. Gerson, A. C., Gerring, J. P., Freund, L., & Joshi, P., The Children's affective reliability scale: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reliability, *Psychiatry Research*, **65**(3), 189-187, 1996.
4. Inada, T., Matuda, G., & Kitao, Y., Barnes Akathisia Scale : Usefulness of standardized videotape method in evaluation of reliability and in training rat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6**(1), 49-52, 1966.



5. 速水敏彦, 質問紙性格検査の再検査効果, 教育心理學研究, **24**, 57-61, 1976.
6. 速水敏彦, 再検査効果についての一研究, 教育心理學研究, **25**, 40-44, 1977.
7. 速水敏彦, 大學生における再検査効果の生起, 心理學研究, **49**(3), 163-166, 1978.
8. 長谷川博一, 自己評價の水準と項目評價が再検査効果に及ぼす影響, 心理學研究, **66**(2), 417-422, 1995.
9. 長谷川博一, 再検査効果と項目再認識記憶の關係について, 心理學研究, **68**(5), 417-422, 1997.
10. Mckelvie, S. J., Does memory contaminate test retest reliability,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19**(1), 59-72, 1992.
11. 吉田正昭, 大野潔, 毛織物の觸感(3), 中央大學理工學府紀要, **23**, 351-373, 1980.
12. 増山英太郎, 小林茂雄, センソリーエバリュエーション-官能検査へのいざない-, 垣内出版, 東京, **19**, 1989.